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정익중**

초 록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인 동시에 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발달산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행동의 원인으로만 간주되어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자아존중감의 결과로서의 가능성을 종단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development trajectory)을 도출하고, 개인·가족·또래집단·학교요인이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3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중학교 2학년 청소년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대상은 총 3,449명이었다. 분석방법은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을 사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은 3년간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신체적 매력·부모의 학대·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반면, 부모자녀애착·부모지도감독·학교애착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에만, 가족갈등은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이 하위집단, 중간집단, 상위집단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매력·부모자녀 애착·학교애착·학업성취는 이러한 발달궤적 집단유형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청소년복지의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 자아존중감, 발달궤적, 잠재성장모형,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I. 문제제기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자신을 능력있고 가치있게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Coopersmith, 1981).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사고나 태도 속에 표현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므로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은 비행, 자살, 우울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문제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또래집단의 압력에 취약하게 만들어 흡연, 음주, 약물남용, 조기 성경험 등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자살충동, 자살생각, 식이장애, 10대 임신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mler, 2001). 하지만 최근 자아존중감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행동과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이 밝혀지고 있다(Baumeister et al.,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가정 하에 아직도 국내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삶의 모든 측면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실제 미국에서 크게 유행하여 자아존중감 운동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에 미국 California주는 이를 받아들여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고, 자아존중감의 증가는 복지의 존, 원치 않은 임신, 학업실패, 범죄, 마약중독 등 사회문제의 감소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예산에 재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1986년에서 1995년까지 매년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문제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Baumeister et al., 2003).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자아존중감의 예측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복지기관에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을 만큼 자아존중감 만능주의가 만연해있고 이것이 철저한 준비없이 미국처럼 국가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과적인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의 개발을 준비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의 장기적 변화를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인 동시에 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발달산물이다(Mason, 2001). 대다수의 연구들은 원론적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인 영향관계를 상정함에도 불구하고 횡단적 자료의 한계나 연구방법의 제한 때문에 원인이나 결과 둘 중 어느 하나로만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정익중, 2006). 종단적으로 본다면 자아존중감은 때에 따라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행동의 원인으로만 간주되어온 경향이 있다. 또한 외국의 기존 연구에는 자아존중감이 변화가 거의 없다는 주장과 자아존중감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전국적 대표성이 높은 패널자료의 미비로 인해 자아존중감의 장기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상반된 주장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과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자아존중감의 결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패널 3개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변화과정은 어떠한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

자아존중감의 변화가능성은 이후 개입효과성에 대한 기초를 제공해주므로 매우 중요하다. 만약 자아존중감의 연속성(continuity)이 높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개입을 통해서도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변화가 거의 없다는 연속성 가설과 변화가 심하다는 변동가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의 연속성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그 변화정도는 낮은 편이다(Cole et al., 2001; 정익중, 2006).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지만, 자아존중감이 한번 형성되면 고정불변 되는 것도 아니다(Allport, 1973). 특히 청소년기 초기에 청소년의 1/3이나 1/2이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rter, 1990; Hirsch & DuBois, 1991).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낮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청소년기 중기나 후기가 되면 자아존중감은 안정화되거나 심지어 증가하기도 한다(Savin-Williams & Demo, 1983; Harter, 1990). 이는 청소년기의 어떤 연령대를 관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발달과정에서 매우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le et al., 2001).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전환기가 존재한다. 청소년기 초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입학, 사춘기의 시작, 형식적·조작적 사고의 발달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후기에 들어서 점점 회복되기 시작한다(Harter, 1998). 연령증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초등5·중2·고2·대학2학년생 자아개념의 발달에 대해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5학년생과 대학2학년생이 중고생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보고하는 V자형 변화추이를 나타냈다(김기정, 1995). 다른 연구에서도 초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중고생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미·김미란, 2003; Rosenberg, 1985). 연령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행했다 회복하는 V형 발달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15~16세 전후로 자아개념이 가장 혼돈을 겪는 시기이고 청소년기 후기로 갈수록 점차 자아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져 안정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홍세희·박언하·홍혜영, 200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적 연구방법으로 특정한 한 연령의 대상과 다른 연령의 대상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발달적 변화를 추론하고 있는 한계점을 갖는다. 최근 홍세희 외(2006)는 패널자료와 종단적 연구방법의 일종인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연령증가에 따라 자아개념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전 연구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모든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평균 발달궤적을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상에 따라 발달궤적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낮

은 자아존중감에서 시작했지만 높아질 수도 있고, 높은 자아존중감에서 시작해 그대로 유지하는 개인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든 개인이 비슷한 발달궤적을 따른다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집단 내에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의 예측요인

우리나라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은 종단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횡단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따라서 횡단적 자료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이 종단적 발달궤적에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한다. 먼저 성별은 자아존중감과 약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umeister, 1993; Pipher, 1994; 최진아·이숙, 1996).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자아존중감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10대 후반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mler, 2001). 이러한 성별차이는 신체적 매력에 대한 지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여아가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해 더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다른 어느 측면보다 신체적 외모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한 연구에 의하면 연구에 참여한 모든 남아의 1/3과 여아의 1/2이 자신의 외모 중 최소한 한 가지에 대해 걱정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지찬수, 1997). 특히 여자들에게 외모를 강조하기 때문에 십대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외모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하고 이는 자아존중감 저하로 이어진다.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매력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대부분 연구결과에서 매우 정적인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Wolsic, & Fujita, 1995).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들보다 생애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대접을 받기 때문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Harter(1999)는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매력 사이에는 .85 정도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신체적 매력이 자아존중감의 변량(variance) 중 70% 이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외모만족도가 낮을 때는 학업성취도가 높아도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윤경, 2003). 만약 이 연구결과들이 사실

이라면, 자아존중감은 본인의 외모에 매우 밀접하게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 등 사회경제적 지위도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약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irsch & DuBois, 1991; 이미리, 2004; 장명희, 2004). 일반적으로 중상층 청소년이 빈곤청소년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도 연령이 높아 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청소년은 더 많은 자원을 가졌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더 질 높은 학교를 다니게 되고, 이는 더 나은 학업성취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개인적인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즉각적으로 원조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자원은 개인의 장점을 강화하고 위협을 약화시켜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결혼가족 여부는 빈곤이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주로 가족 영역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리(2004)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자녀관계 · 부모의 지도감독 등이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애정적으로 양육하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적절하게 지도감독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한다. 이렇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이다(Coopersmith, 1981). Coopersmith(1981)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의 부모는 일정한 환경 내에서 자녀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따뜻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애정을 빈번하게 표현하며, 자녀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부모를 가지고 있고,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 높다(장휘숙, 2002; 서영숙 · 박옥임, 2002).

반면 자녀를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부모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저해한다.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손상을 가져오는 것 중 하나는 신체적이든 성적이든 가해지는 학대이다(정익중 · 박현선 · 구인회, 2006). 학대로 인해 나타나는 보편적인 심리정서적 후유증은 자아개념의 왜곡과 자아존중감의 저하이다(Green, 1985; Cerezo & Frias, 1994). 학대처럼 가족갈등도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자녀가 부모의 갈등을 높게 인지하거나, 부모자녀간에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할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부모간 또는 부모자녀간의 가족 내 갈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지은 · 최미경, 2004; 최정미, 2004; 홍세희 외, 2006).

또한 또래집단 등 타인과의 질높은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kowski & Hoza, 1989). 아동기까지는 부모, 형제 등 가족과의 관계가 주된 사회적 관계였지만, 청소년기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욕구가 강해지면서 또래집단에 상대적으로 강한 애착을 보이는 발달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또래집단은 매우 중요한 정서적 지지의 자원이자 자아개념 준거의 틀이 되기도 한다(김계현 외, 2000). 이러한 특성은 또래집단에서 인기아가 비인기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거명에 의한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자아개념을 비교 연구한 결과, 인기집단이 비인기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높은 대인관계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진희, 1999). 하지만 반대로 처음부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들과 이러한 질높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성공과 실패 경험이다. 청소년기 성공 경험 중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학업성취이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적 현실을 고려해보면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업성취에는 학교애착심이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학교애착심이 높으면 학업성취도 높아진다(Catalano et al., 2004). 반면 실패 경험 중에 대표적인 것은 비행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는 주장은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Donnellan et al., 2005; Mason, 2001; 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 김희화 · 김경연, 2000).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와는 반대로 비행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McCarthy & Hoge, 1984; Jang & Thornberry, 1998).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아직까지 경험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행은 부정적인 낙인을 유발하게 되어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낮출 수도 있고, 반대로 자아강화(self-enhancement)의 과정을 거쳐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

다(정익중, 2006).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아존중감이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developmental trajectory)에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1~3차년도까지 3개년의 중학교 2학년 패널자료를 사용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추정한 다음,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은 어떠한 방식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발달궤적 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특정시점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미치는 변수를 분석하는 횡단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자아존중감의 장기적 발달궤적을 예측하고, 이런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발달적 관점에서 자아존중감을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초기상태 및 발달과정에 있어 개인, 가족,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의 인과적 영향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역동적인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가운데 3,449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2003년에 조사를 시작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3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과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 중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동일한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되었다(이경상·조혜영, 2004). 이는 집락표집에 기초한 규모비례확률표집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12개 특별시·광역시·도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지역별로 학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학교에서 무작위로 한 개 학급을 뽑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조사 방법은 면접원이 학급에 방문하여 설문지를 나눠주고 집단면접하는 방식이었으며, 가구에 관한 사항은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가구별로 전화를 걸어 부모와의 전화면접을 병행하였다. 2차년도 이후의 조사방법은 부모는 동일하게 전화면접조사를 했지만 청소년들은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조사된 중학교 2학년 패널 자료로서 조사시작 시점에서는 응답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3차년도 조사시점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1차년도 총 조사대상자는 3,449명이었으나 2차년도 응답자는 3,188명으로 92.4%의 응답률을 보였고, 3차년도에는 3,125명이 응답하여 90.6%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경상·조혜영(2004), 이경상 외(2003)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주요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 자아존중감

청소년패널에서는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중 6가지 문항을 추출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고 있다. 사용된 문항은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등이며 뒤의 두 문항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것이므로 역점수화 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신뢰도는 .74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1) 개인요인

① 성별

원자료에는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되어 있었으나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여자는 0, 남자는 1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② 신체적 매력

신체적 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의 3문항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역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이유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신체적 매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신뢰도는 .73이다.

③ 비행

비행은 14가지 종류의 비행 경험유무를 합산하여 등간변수로 사용하였다. 14가지 비행 중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청소년들은 0점이고 14가지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은 14점을 얻게 되어 0점에서 14점 사이의 점수분포를 보이게 된다.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71이다.

(2) 가족요인

① 빈곤 여부

빈곤 여부는 가구별 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에 기초하여 욕구소득비가 1이하이면 빈곤한 것으로 조작화하였다. 즉, 가구원수별로 계산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빈곤가구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비빈곤가구로 정의된다. 조사시작 시점인 200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1인 355,774원, 2인 589,219원, 3인 810,431원, 4인 1,019,411원, 5인 1,159,070원, 6인 1,307,904원이었다(보건복지부, 2003).

② 결손가족 여부

가족의 구조적 형태를 측정하는 결손가족 여부는 청소년이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0, 그렇지 않은 경우를 1로 처리하였다. 의붓부모가족(친부양모나 양부친모가족)의 경우에도 양쪽 부모가 모두 존재하면 0으로 처리하였다. 빈곤 여부와 결손가족 여부는 다른 변수들과 달리 부모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이다.

③ 가족갈등

가족갈등은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와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등의 2문항(5점 척도)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족내 갈등이 심각한 것을 의미하며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75이다.

④ 부모의 학대

이 척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난폭한 언행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의 2문항(5점 척도)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상적인 의미의 학대라기보다 가혹한 훈육에 가까운 것이다. 학대도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는 것이므로 가혹한 훈육이 정도를 넘어 최고 점수를 얻는다면 학대로 간주할 수 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대에 근접한 것을 의미하며 이의 신뢰도는 .76이다.

⑤ 부모자녀애착

부모자녀애착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의 6가지 문항(5점 척도)의 점수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간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⑥ 부모지도감독

부모지도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의 4가지 문항(5점 척도)의 점수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청소년 생활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철저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의 신뢰도는 .85이다.

(3)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

① 비행또래집단

이 척도는 근신·정학·퇴학, 흡연, 음주, 무단결석, 폭행, 갈취, 절도 등의 8가지 비행을 경험한 친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가 주위에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변수는 매우 친한 친구들 중에 몇 명 정도가 8개의 비행과 관련되는지를 각 비행별로 ‘매우 친한 친구들의 수’에 대한 비율로 변환하여 0(한명도 없음)과 1(모두 관련됨)사이의 점수로 계산한 뒤 이를 모두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이의 신뢰도는 .82이다.

② 학교애착

학교애착은 학교 공부에 흥미가 있는지, 학교 숙제를 잘 하는지,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지 등의 5개 항목을 평균하여 측정되었으며 각각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61이다.

③ 학업성취

이 척도는 청소년 자신이 보고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영역에서의 반 성적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 객관적인 성적이라기보다 주관적으로 인지된 학업성취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의 신뢰도는 .79이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기존 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관찰변수중심적(variable-centered) 접근에서는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평균 발달궤적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지만, 관찰대상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은 청소년집단 내 질적으로 차별화된 다양한 발달궤적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둔다. 관찰변수중심적 접근이 청소년발달의 일반적인 경향을 밝히는 데는 유용하지만 집단 내에서 다양한 질적 차이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에서는 동일집단 내 질적인 차별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집단 내의 상이한 발달유형을 밝히는데 용이하다(Chung et al.,

2001). 두 접근의 차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Chung et al.(2001)의 논문을 참조하라. 본 연구에서는 관찰변수중심적 접근과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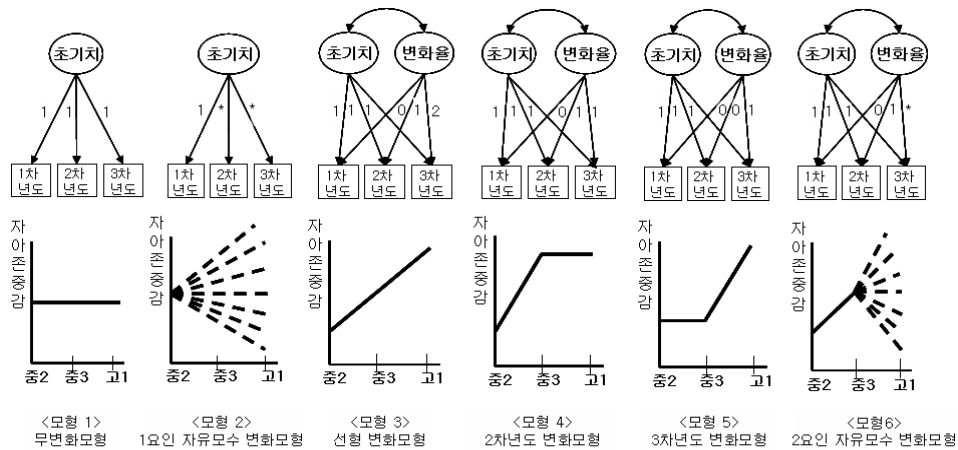
1) 관찰변수중심적 접근 : 잠재성장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발달과정과 이 발달과정의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을 이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에 따른 개인의 평균적 변화와 그 변화의 개인간 차이를 설명하는 예측요인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방법이다(Duncan et al., 1999). 자아존중감의 잠재성장모형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발달곡선을 각 개인의 3개년 반복측정치(repeated measures) 자료에 적합시킨다. 이 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의 방법론을 따르고 이를 통해 평균 발달곡선의 초기치(intercept), 변화율(slope) 등을 얻게 된다. 평균 잠재성장모형의 각 계수의 변량(variance)은 발달에 있어서의 개인적 차이를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원자료가 아니라 1단계에서 얻어진 잠재요인(latent factor)으로서의 초기치, 변화율을 다양한 예측요인들에 연결시켜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낸다.

잠재성장모형에서 동일인(i=1에서 N)을 시간(t=1에서 T)에 따라 반복측정한 변수 Y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Ferrer, Hamagami, & McArdle, 2004).

$$Y_{it} = \beta_{0i} + \beta_{1i} \times (t) + \epsilon_{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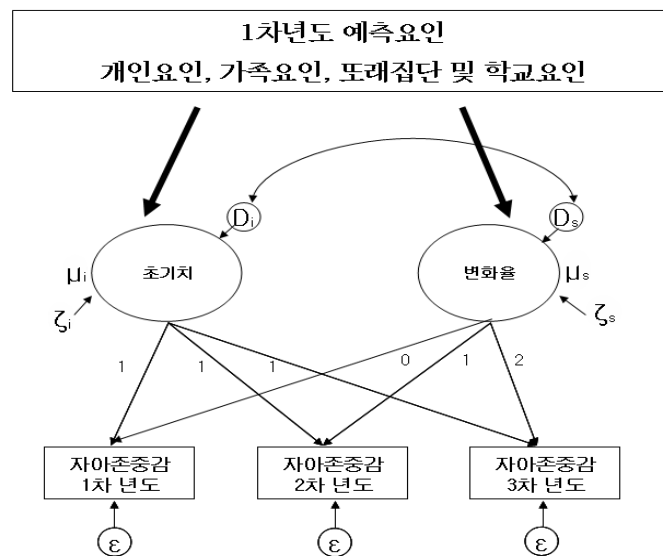
여기서 β_{0i} 은 개인의 초기수준(초기치)을 나타내는 잠재변수이고, (t) 는 성장의 모양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β_{1i} 은 시간에 따른 개인의 변화(변화율)를 나타내는 잠재변수이고, ϵ 는 관찰되지 않은 측정오차를 나타낸다. 이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식이다. 위의 모형은 변화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데 기본계수를 특정값으로 놓음으로써 변화에 대한 대립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변화모형은 위의 수식에서 변화율의 모든 요인계수를 0으로 놓음으로써 검증하게 된다.



[그림 1] 변화모형의 6가지 유형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3년간의 변화에 가장 잘 적합하는 발달궤적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6가지 다양한 변화모형을 설정한 다음 모형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먼저 무변화모형(모형1)은 초기치만 있고, 변화율은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3년간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1요인 자유모수모형(모형2)은 무변화모형처럼 1개 요인만 있는 것으로 2차년도, 3차년도 요인계수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설정하여 다양한 변화를 보다 간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모형이다. 선형변화모형(모형3)은 잠재성장모형의 가장 기본형으로 초기치와 변화율 2개의 잠재요인이 있는 것으로서, 초기치의 요인계수를 모두 1로 고정하고,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 1, 2로 고정하여 3년간의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한 모형이다. 2차년도 변화모형(모형4)은 선형변화모형과 요인구조는 같으나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선형변화모형처럼 0, 1, 2로 설정하지 않고 0, 1, 1로 설정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3년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선형변화모형처럼 직선적으로 변화하기보다는 1차년도에서 2차년도 사이에는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있으나 2차년도에서 3차년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3차년도 변화모형(모형5)도 선형변화모형과 요인구조는 같으나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 0, 1로 설정한 것으로서 이 모형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 사이에는 자아존중감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2차년도에서 3차년도 사이에는 변화가 있다고 가정한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2요인 자유모수변화모형(모형6)은 다른 2요인 모형들(모형3-5)과 요인구조는 동일하지만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미리 지정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미리 가정하지 않고, 변화율의 1, 2차년도 요인계수는 0, 1로 고정하지만 변화율의 3차년도 요인계수는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설정한 모형이다. 여기서 변화율의 1, 2차년도 요인계수를 0, 1로 고정하는 이유는 일종의 기준 간격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1차년도에서 2차년도 사이의 변화를 1로 놓았을 때 2차년도에서 3차년도 사이의 변화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정소희, 2006). 2요인 자유모수변화모형은 변화율의 3차년도 요인계수를 자유롭게 추정함으로써 자료의 실제적 변화에 가깝게 모형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반면 자유도(df)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모형의 간명도(parsimony)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2] 잠재성장모형의 2수준 분석모형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최적모형이 도출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율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개인요

인, 가족요인,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 등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2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2수준 분석모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χ^2 통계량,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인 NFI, CFI 등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NFI나 CFI는 .90이상이면 수용할 만하고(Kline, 1998; 배병렬, 2004) RMSEA는 .10이하이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06이하이면 자료를 매우 잘 적합시킨다고 볼 수 있다(Hu & Bentler, 1999).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에는 Amos(Version 5)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자료의 기술통계에는 SPSS(Version 13)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2) 관찰대상중심적 접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

본 연구는 관찰대상중심적 접근 중 하나인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을 사용하여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려고 한다.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은 Nagin이 개발한 통계기법으로 종단적 장기자료를 바탕으로 상이한 발달유형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통계기법이다(Nagin, 1999, 2005; Nagin & Land, 1993; Chung et al., 2002). 이는 개념적으로 종단적 자료를 이용한 군집분석과 유사하지만 횡단적 자료를 이용한 군집분석처럼 한 시기에 비슷한 특질을 가진 사람들을 묶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슷한 발달경로를 따르는 사람들을 묶어내는 분석기법이다.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몇 개의 발달궤적(잠재적 집단)이 통계적으로 최적의 모형인가? 둘째, 어떤 개인이 특정 발달궤적 집단에 소속된 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첫 번째 모형의 비교에는 모형간에 위계적으로 내포되어(nested) 있다면 우도비 차이검정(likelihood ratio difference test)이나 χ^2 차이검정(chi-square difference test)으로 최적모형을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은 k개 집단모형과 k+1개 집단모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집단마다 다항식(polynomial)의 결정이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집단은 무변화를 따르고 어떤 집단은 일차식을 따르고 어떤 집단은 2차식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포되지 않은 집단의 비교에는 일반적으로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를 사용하여 최적모형을 결정한다. BIC는 내포되든 내포되지 않든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모형비교에 적합하기 때문이다(Kass & Raftery, 1995; Raftery, 1995). BIC를 이용하여 최적모형을 결정할 때, BIC의 절대값이 가장 낮은 모형이 최적모형이 된다(Nagin, 2005). BIC는 간명도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집단수가 적은 모형을 지지할 것이다.

두 번째 개인의 집단소속과 관련하여 개인이 어떤 발달단계 집단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에서는 분석결과에서 개인들에게 각 집단에 소속될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제공한다. 각 집단의 계수에 근거해서 각 집단에 소속될 사후확률을 계산하게 되고, 이 확률들을 비교하여 최대사후확률규칙(maximum posterior probability rule)에 따라 개인은 사후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에 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사후확률규칙이 완벽한 배정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집단배정에는 분류오차(classification error)가 있을 수 있다.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은 SAS(Version 9)프로그램의 절차 중 TRAJ를 사용한다. TRAJ는 Jones, Nagin, & Roeder(2001)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기본 SAS프로그램에 결합하여 사용한다.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에서는 개인이 모든 측정시점에서 응답한 완전한 자료가 필수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사례도 자료분석시 제외되지 않는다.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Nagin(2005)이나 Chung et al.(2001)을 참고하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에서 연령과 자아존중감을 연결시키는 다항식은 3차식까지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형적 변화로 나타났던 잠재성장 모형의 결과를 반영하여 1차식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_{it}^{*j} = \beta_0^j + \beta_1^j \text{Age}_{it} + \epsilon,$$

이 식에서 y_{it}^{*j} 는 잠재적인 변수로서 집단 j에 조건지어진 개인 i의 시점 t에서의 측정값을 뜻하며, 첨자 i는 개인에 따라 측정횟수와 측정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ge_{it} 는 개인 i의 시점 t에서의 연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ϵ 는 오차를 의미하며 0의 평균과 σ^2 의 변량을 가진 것으로 가정된다. 모형의 계수 β_0^j , β_1^j 는 발달단계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첨자 j는 이 계수가 집단에 따라 고정되지 않고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수를 자유롭게 추정함으로써 발달단계가 집단마다 달라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특징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되는 통계식을 사용하는 잠재성장모형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다. 이러한 유연성이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집단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population heterogeneity)을 특정 시점뿐만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통해 추정된다.

관찰치 y_{it} 와 잠재적인 변수 y_{it}^{*j} 를 연결시키는 연결함수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절단정규(censored normal) 모형, 영과잉 푸아송(zero-inflated Poisson) 모형, 이항로짓(binary logit) 모형 3가지가 가능하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1에서 5의 값을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갖지만 그 안에서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절단정규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y_{it}^{*j} 는 y_{it} 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된다. 본 식에서 $S_{\min}$ 이 최소값이고 $S_{\max}$ 이 최대값이다.

$$\begin{aligned} y_{it} &= S_{\min}, \text{ if } y_{it}^{*j} < S_{\min}, \\ y_{it} &= y_{it}^{*j}, \text{ if } S_{\min} \leq y_{it}^{*j} \leq S_{\max}, \\ y_{it} &= S_{\max}, \text{ if } y_{it}^{*j} > S_{\max}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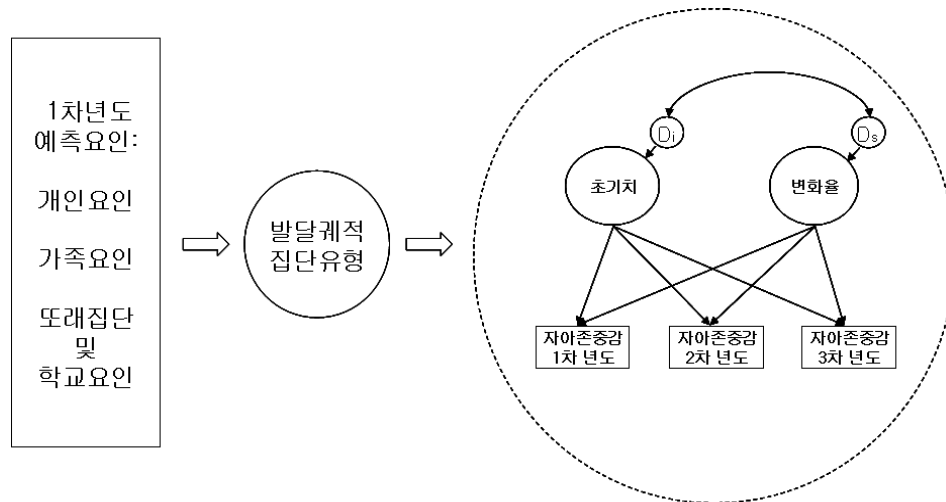
잠재적인 변수 y_{it}^{*j} 가 최소값보다 적다면 관측치 y_{it} 는 최소값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y_{it}^{*j} 가 최대값보다 커지면 y_{it} 는 최대값이 될 것이다. 오직 y_{it}^{*j} 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을 때만 y_{it}^{*j} 가 y_{it} 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위의 절차를 통해 질적으로 상이한 발달궤적이 도출되면 다음 단계는 <그림 3> 처럼 상이한 발달궤적의 차이를 가져오는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는 종속변수가 질적으로 상이한 발달궤적이므로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통계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Prob}(y = j) = \exp(\beta_j Z_i) / \sum_j \exp(\beta_j Z_i)$$

여기서 j 는 1,2,3... j 까지 상이한 발달궤적의 숫자이다. $i = 1,2,\dots,N$ 까지 개인을 의미하며 Z 는 예측변수의 벡터이다. 이 모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통

해 추정되며 분석은 SAS(Version 9)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림 3]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2수준 분석모형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연속변수는 평균(M)과 표준편차(SD)로 표시하였고, 성별·빈곤 여부·결손가족 여부 등 명목변수는 사례수(N)와 비율(%)로 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은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M	SD	M	SD	M	SD
	N	%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3.32	0.61	3.38	0.60	3.43	0.58
독립변수						
개인요인						
성별(남=1)	1.725	50.00				
신체적 매력	3.41	0.95				
비행	1.15	1.68				
가족요인						
빈곤(빈곤=1)	310	9.40				
결손가족(결손=1)	128	3.90				
가족갈등	1.85	0.92				
부모의 학대	1.73	0.89				
부모자녀애착	3.34	0.78				
부모지도감독	3.22	0.87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						
비행또래집단	0.41	0.83				
학교애착	2.86	0.66				
학업성취	3.11	0.78				

2. 관찰변수중심적 접근: 잠재성장모형

1)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

3년 동안 자아존중감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6가지 유형의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분석하였다(〈표 2〉). 모형1은 초기치만 있고, 변화율은 설정하지 않은 모형으로 3년간에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이다. 모형2는 모형1에서 2차년도, 3차년도 요인계수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형1과 모형2는 1요인 모형으로 χ^2 값이

매우 크고, 적합도가 매우 낮아 적절한 모형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2요인 모형의 기본형인 선형변화모형이다. 모형4-6은 모형3과 요인구조는 동일하나 각 년도의 변화를 어떻게 변화율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모형4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화율을 2차년도에 변화하도록 구성한 모형이고, 모형5는 3차년도에 변화하도록 구성한 모형이고, 모형6은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설정한 2요인 자유모수변화모형이다. <표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6가지 모형 중 선형변화모형(모형3)과 2요인 자유모수변화모형(모형6)이 χ^2 값이 가장 낮고 다른 적합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종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모형6은 모형3에 내포된(nested) 모형이므로 모형3과 모형6을 더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χ^2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Delta \chi^2 = 2.795$, $\Delta df = 1$), 두 모형간의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χ^2 차이는 없지만 더 간명한 선형변화모형(모형3)을 더 적합한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2> 자아존중감의 6가지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모 형	$\chi^2(df)$	p값	NFI	CFI	RMSEA
모형1 : 무변화모형	326.971(7)	0.000	.833	.837	.115
모형2 : 1요인 자유모수변화모형	201.892(5)	0.000	.897	.899	.107
모형3 : 선형변화모형	44.183(4)	0.000	.977	.979	.054
모형4 : 2차년도 변화모형	86.274(4)	0.000	.956	.958	.077
모형5 : 3차년도 변화모형	129.980(4)	0.000	.934	.936	.096
모형6 : 2요인 자유모수변화모형	41.388(3)	0.000	.979	.980	.061

주 : 진하게 표시된 모형이 최적모형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선형변화모형(모형3)을 최종적인 분석모형으로 설정한 후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보았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치의 평균은 3.318, 변량은 .219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청소년들 간에 상당한 개인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년간의 변화율의 평균은 .056으로 나타나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3년 동안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율

의 변량(.025)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개인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정도도 -.032로 나타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자아존중감 정도(초기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증가가 느리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지만, 초기치와 변화율의 부적인 상관관계로 인해 1차년도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2, 3차년도로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반면, 1차년도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디게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 자아존중감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평 균	변 량
초기치(Intercept)	3,318(.010)***	.219(.008)***
변화율(Slope)	.056(.006)***	.025(.003)***
초기치 - 변화율의 상관계수	-.032(.004)***	

주 : 괄호안은 표준오차, ***p < .001

2)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에 대한 예측요인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투입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수준 모형은 자아존중감 초기치 변량의 31.5%, 자아존중감 변화율 변량의 18.0%를 설명하고 있어 비교적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초기치는 신체적 매력, 부모의 학대, 부모자녀애착, 부모지도감독, 학교애착, 학업성취 등 6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요인 중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관련이 있는 변수는 신체적 매력으로서, 예측한 바대로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정적인 관계(.193)를 나타내고 있다. 즉, 신체적 매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 중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관련이 있는 변수는 부모의 학대, 부모자녀애착, 부모지도감독 등 세 변수인데, 이는 모두 가족과정과 관련된 변수들이다. 부모의 학대는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부적인

관계(-.102)로,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높고 부모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지 않을수록 1차년도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빈곤 여부, 결혼가족 여부 등은 모두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 중에서 학교애착은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정적인 관계(.163)로 나타나 학교와의 유대가 강한 청소년일수록 1차년도 자아존중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정적인 관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354), 학령기 청소년에게 성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4>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예측요인

중2(2003) 예측요인	자아존중감 초기치	
	R ²	자아존중감 변화율
	.315	.180
개인요인		
성별(남=1)	.020	-.118
신체적 매력	.193***	-.284*
비행	.039	-.118
가족요인		
빈곤(빈곤=1)	.014	-.092
결혼가족(결혼=1)	.035	-.064
가족갈등	.030	-.282**
부모의 학대	-.102***	.372**
부모자녀애착	.180***	-.262
부모지도감독	.082***	-.255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		
비행또래집단	.023	.094
학교애착	.163***	-.033
학업성취	.354***	-.602**

$\chi^2 = 479.526(df=24)$, $p < .001$, NFI = .965, CFI = .967, RMSEA = .049

*p < .05, **p < .01, ***p < .001

주 : 각 수치는 표준화 경로계수임

자아존중감의 변화율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신체적 매력, 가족갈등, 부모의 학대, 학업성취 등 4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매력은 자아존중감 변화율과 부적인 관계(-.284)로 나타나 신체적 매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증가속도가 더 느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한데, 신체적 매력과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간에 높은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므로 신체적 매력이 높았던 청소년들은 조사시작 시점에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의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가족갈등은 자아존중감의 변화율과 부적인 관계(-.282)로 나타나 가족갈등이 심할수록 자아존중감의 증가속도가 느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학대와 자아존중감 변화율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학대를 받은 청소년은 초기치가 너무 낮음으로 인해 증가속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학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정익중 외, 2006) 시간이 갈수록 자아존중감의 증가가 더 커졌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의 변화율과 높은 정도의 부적인 관계(-.602)를 보이고 있어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변화속도가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해보면 학업성취가 높은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매우 높았고 이 때문에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단순히 학업성취를 통한 자아존중감은 성적저하 등과 같은 갑작스런 외부충격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격이라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는 결과들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최대 5점 중 3.318점)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천장효과(ceiling effect) 때문에 최대값이 정해진 상황에서 무한정 높아지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증가속도는 초기치에 높은 수준으로 조건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초기치가 높았던 집단은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초기치가 낮았던 집단은 증가속도가 높아진다. 이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았던 집단은 높아지고 높았던 집단은 낮아져서 3차년도에는 차이가 사라지는 수렴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가속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의 검토는 관찰변수중심적 접근의 잠재성장모형을 통해서만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체적 매력이 높거나 학업성취가 높아서 초기치가 높았던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 발달궤적을 보이는 상위집단에 속하는지, 초기치가 낮았던 청소년들은 2차년도 이후부터는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어 상위 발달궤적 집단에 편입되는지 등을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관찰대상중심적 접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

1)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절차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모형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1집단 모형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잠재성장모형의 결과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2집단 모형부터는 1집단으로부터 질적으로 상이한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을 구분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2집단 모형은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되고, 3집단 모형은 상위집단, 중간집단, 하위집단으로 구분되었다. 4집단 모형의 경우 상위집단, 중간집단 2개, 하위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집단간의 비교는 모형들이 서로 내포된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를 사용하였고, 이 중 절대값이 가장 낮은 3집단 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5>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모형적합도와 집단분포

모형	BIC	발달궤적 집단분포			
		1 st	2 nd	3 rd	4 th
1집단	-9005.83	100.0%	-	-	-
2집단	-8320.69	62.5%	37.5%	-	-
3집단	-8080.13	62.8%	21.0%	16.2%	-
4집단	-8147.89	44.9%	43.2%	9.5%	2.4%

주 : 진하게 표시된 모형이 최적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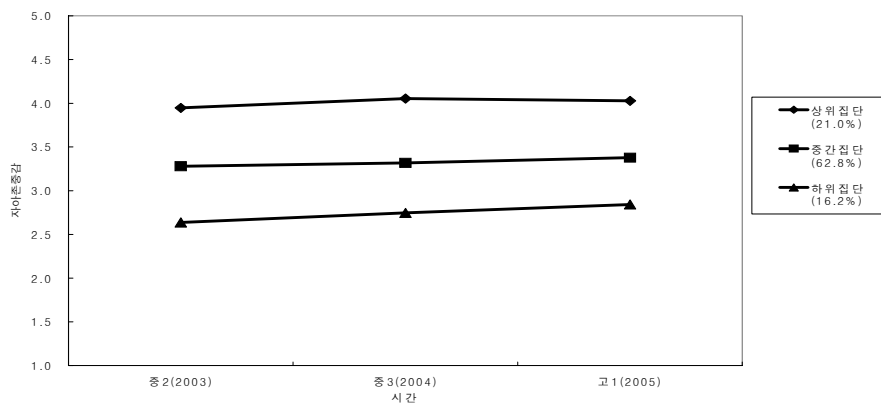
3집단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먼저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하위집단은 전체 청소년의 16.2%가 속하며, 초기치가 가장 낮은데서 시작하지만 그 변화율은 가장 큰 집단이다(<표 6>). 그러나 발달궤적이 교차할 만큼 큰 것은 아니어서 평행선을 그리

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중간집단은 전체 청소년의 62.8%가 속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초기치가 중간 정도에서 시작하고 그 변화율의 크기도 중간이다. 셋째,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상위집단은 전체 청소년의 21.0%가 속하며, 초기치가 가장 높은데서 시작하고 그 변화율은 여전히 (+)이지만 그 크기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이 초기치에 조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높은 초기치는 변화율의 둔화를 가져오지만 집단간 수렴효과를 발생시킬 만큼 크지는 않았고 증가속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집단간 차이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아존중감에 대한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추정치

		계 수	표준오차
하위집단	초기치(Intercept)	1.605***	.214
	변화율(Slope)	1.033***	.181
중간집단	초기치(Intercept)	2.792***	.101
	변화율(Slope)	0.484***	.084
상위집단	초기치(Intercept)	3.564***	.164
	변화율(Slope)	0.411***	.148

***p < .001



[그림 4]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3집단 모형

이러한 집단 배정은 3집단 모형을 통해 생성된 사후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에 배정된다는 최대사후확률의 규칙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도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오차(classification error)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7>은 최대사후확률 배정규칙에 따른 발달궤적 집단의 평균 사후확률이다. 이는 배정된 발달궤적 집단의 평균 사후확률이 1에 가깝고 가장 크다면 분류오차는 낮은 것이다. 이 표에서는 대각선 방향이 1에 가깝고 그 나머지는 0에 가깝다면 분류오차는 낮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정된 발달궤적 집단의 평균 사후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류오차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최대사후확률 배정규칙에 따른 발달궤적 집단의 평균 사후확률

사후확률	배정된 발달궤적 집단		
	하위집단	중간집단	상위집단
하위집단	.79	.09	.00
중간집단	.21	.84	.16
상위집단	.00	.07	.84
총 계	1.00	1.00	1.00

주 : 진하게 표시된 대각선상의 사후확률이 1이면 분류오차는 0임

2) 자아존중감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

이제 2단계로서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통해 얻어진 3개의 발달궤적 집단이 서로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에서 얻어진 세 개의 집단이 종속변수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지분분석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하위집단에 비교하여 중간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은 성별, 신체적 매력, 부모자녀애착, 학교애착, 학업성취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일수록, 신체적 매력이 높을수록, 부모자녀애착이 높고 학교애착이 높으며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하위집단에 비교해서 중간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하위집단에 비교하여 상위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은 신체적 매력, 부모자녀애착, 부모지도감독, 학교애착, 학업성취로 나타났고, 상위집단이 될

확률을 낮추는 것은 부모의 학대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매력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애착이 높고 부모의 학대는 없으며 부모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있을수록, 또한 학교애착이 높고 학업성취도 높을수록 하위집단에 비교하여 상위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 발달케적의 중간집단에 비교하여 상위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은 신체적 매력, 부모자녀애착, 학교애착, 학업성취이고, 상위집단이 될 확률을 낮추는 것은 성별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매력이 높을수록, 부모자녀애착이 높고 학교애착이 높으며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중간집단에 비교하여 상위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중간집단에 비교하여 상위집단에 여학생이 더 많으며 하위집단에도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매력, 부모자녀애착, 학교애착, 학업성취는 세가지 비교 모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다항로지분석을 통한 자아존중감 발달케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

	하위집단 대 중간집단		하위집단 대 상위집단		중간집단 대 상위집단	
중2(2003)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개인요인						
성별(남=1)	.362**	.121	.111	.151	-.252*	.105
신체적 매력	.167**	.063	.584***	.080	.417***	.058
비행	.024	.040	.030	.055	.006	.043
가족요인						
빈곤(빈곤=1)	-.013	.196	.252	.261	.265	.199
결손가족(결손=1)	.530	.328	.667	.400	.148	.263
가족갈등	-.019	.068	.042	.090	.061	.068
부모의 학대	-.115	.072	-.223*	.098	-.108	.075
부모자녀애착	.410***	.089	.721***	.114	.311***	.082
부모지도감독	.135	.075	.219*	.097	.084	.070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						
비행또래집단	.084	.081	.125	.105	.141	.067
학교애착	.537***	.103	.796***	.127	.259**	.086
학업성취	.568***	.087	1.373***	.109	.806***	.074

*p <.05, **p <.01, ***p <.001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을 통해 앞서 살펴보았던 관찰변수중심적 접근에서 신체적 매력과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증가속도가 둔화되었던 문제의 의문을 풀게 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신체적 매력과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매우 높아서 이후 변화율에 있어 별 영향은 주지 못했지만 자아존중감의 높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먼저 자아존중감의 발달과정은 어떤 양상을 보이며,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및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잠재성장 모형의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은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시작시점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의 변화율, 즉, 자아존중감의 증가속도가 느려지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존중감 관련요인 중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적 매력·부모의 학대·부모자녀애착·부모지도감독·학교애착·학업성취 등 6가지였으며, 자아존중감의 변화율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신체적 매력·가족갈등·부모의 학대·학업성취 등 4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애착·부모지도감독·학교애착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와는 반대로 가족갈등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매력·부모의 학대·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화율의 경우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는 결과가 많이 발생하였다. 신체적 매력이 높고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증가속도가 더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매력이 나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간에 높은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므로 신체적 매력이 높고 학업성취가 높았던 청소년들은 조사시작시점에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천장효과(ceiling effect) 때문에 최대값의 한계(우측 절단)가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의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다. 이러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는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실제 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개인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의 일종인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발달 궤적은 하위집단, 중간집단, 상위집단의 세 가지 발달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초기치는 증가속도의 둔화를 가져오지만 중국에는 집단간 차이가 사라지는 수렴효과를 발생시킬 만큼 크지는 않았고, 집단 간 차이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속성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2학년 이전에 이미 개인적인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는 조기에 시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상이한 발달 궤적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은 신체적 매력·부모자녀애착·학교애착·학업성취로 나타났다. 신체적 매력이 높고, 부모와 자녀 간 애착이 높으며, 학교애착이 높고 학업성취가 높은 청소년은 상위 자아존중감 발달 궤적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하위 발달 궤적 집단을 구분해내고, 이들에게 유용한 개입의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해 부모자녀애착이나 학교애착에 대해서는 신체적 매력이나 학업성취에 비해 개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모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기술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학교의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상담, 학교사회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원조해야 한다.

반면 신체적 매력과 학업성취는 개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외모와 성적은 가장 스트레스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lookism)와 과잉교육열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청소년이 점차 성장할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외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도 증가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의철·박영신, 1999). 남녀 모두에게서 외모만족도, 학교성적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미선 · 이정연, 2003). 본 연구에서도 신체적 매력과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 발달과정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성형수술이라는 극단적 방법이 있긴 하지만 외모를 바꾸기도 쉽지 않고, 성적을 단기간에 올리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모와 성적과 관련해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이나 학교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자녀애착, 학교애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성적, 외모는 객관적인 조건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객관적인 상황을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주관적인 인식을 수정한다면 이는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존재한다. 조지숙(1992)은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의 외모를 실제보다 매력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 · 적극적 사고성향이 자아존중감을 높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외모만족은 객관적인 수치보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높다(Lennon et al., 1999). 따라서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신체상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인권교육 등을 통해 사람들의 외모는 모두 다르고, 다른 외모는 그 사람의 개성이며, 각 사람의 개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외모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임을 인식시켜 자신을 수용하고, 본인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현장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기긍정 실천프로그램과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다.

학령기 동안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주 어린 때부터 학업성적을 비롯한 교과와 관련되는 모든 성취도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준거로 삼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성취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게 된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에게는 본인의 실패가 결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노력을 통해 작은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과제의 난이도를 낮추어 제시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소년에게 소규모 과제를 제공하고 이를 스스로 완성해 보는 기회를 주어 자신감을 기르고 자아존중감을 가지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강문희 · 이광자 · 박경, 1999).

청소년들이 자기 능력을 시도해보도록 교사가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높은 기대를 하면, 청소년으로부터 보다 높은 성취를 끌어낼 수 있다.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 또는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라고 한다(Tauber, 1997). 교실 상황에서 교사는 청소년이 자기 능력을 시험해 보는 과정에서 성취감이나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성영혜 외, 2001). 이렇게 교사들은 자신들의 언행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동기가 유발된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Lepper & Hodell, 1989; Spaulding, 1992). 학습동기가 충만한 청소년은 학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학업성취가 향상되어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Gardner(1993)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 차이는 있다할지라도 다양한 종류의 지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지능을 적절한 어떤 수준까지 개발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능력을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습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의미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도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자녀에게 학습만을 강요하기보다 청소년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는 청소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방법으로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성 있는 종단자료의 부재로 인해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이 개인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존재함을 밝히고, 이러한 차이를 질적으로 상이한 발달궤적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이런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 가족 · 또래집단 · 학교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요인들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대다수의 자아존중감 관련 연구들은 횡단연구들이어서 인과관계의 전제조건인 시간적 우선성을 확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다기보다는 특정시점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때 측정된 개인·가족·또래집단·학교 요인이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및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발달단계 집단의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이러한 독립변수들이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을 통해 특히 자아존중감 측면에서 취약한 하위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좀 더 깊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집단이며, 이들을 위해 발달과정에서의 차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개입방안을 개발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부족 때문에 변화율이나 발달단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함에 있어 횡단적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변수들이 변화율과 발달단계의 차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고 시작한 탐색적 연구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변화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누락된 변수들이 있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3개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의 발달단계를 예측한 것이므로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추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3년간의 종단연구로 청소년의 전체 발달단계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의 발달단계를 보다 더 정교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종단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가질 수 있는 다차원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차원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자아존중감은 단일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일 수 있다(Rosenberg et al., 1995; 김희화·김경연, 2000; 이동원, 2005).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다차원성을 고려하면 각 하위영역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과 그것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 · 이광자 · 박경(1999). 인간관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계현 · 김동일 · 김봉환 · 김창대 · 김혜숙 · 남상인 · 조한익(2000).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 김기정 역(1995). 자아의 발달. 서울: 문음사. Leahy, R. L.(1985). *The development of the self*.
- 김의철 · 박영신(1999). 한국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13권 제1호, pp.99~142.
- 김희화 · 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5호, pp.15~24.
- 배병렬(2004). 구조방정식모델을 위한 SIMPLIS 활용과 실습. 서울: 청목출판사.
- 보건복지부(2003).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영숙 · 박옥임(2002).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7권 제2호, pp.51~73.
- 서윤경(2003).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 · 김광웅 · 이재연 · 서영숙 · 이소희(2001). 아동심리학.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윤지은 · 최미경(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5호, pp.237~251.
- 이경상 · 김진호 · 오해섭 · 김희진 · 김재민(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 조혜영(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I: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동원(2005).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비행: 자아개념의 제 차원과 비행유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pp.357~383.
- 장명희(2004).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선 · 이정연(200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한국생활과학 회지*, 제12권 제4호, pp.433~447.
- 장휘숙(2002). *아동발달: 아동의 심리적 세계*. 서울: 박영사.
- 정소희(2006). 청소년비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제 3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 자료집.
- 정익중(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31호, pp.133~159.
- 정익중 · 박현선 · 구인회(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 학*, 제58권 제3호, pp.223~244.
- 조지숙(1992). 청소년의 신체상, 신체적 매력, 신체상의 왜곡과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 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찬수(1997). 중고등학생의 신체적 특성 인식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분석.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미(2004).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관한 연 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5권 제2호, pp.83~92.
- 최정미 · 김미란(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373~394.
- 최진아 · 이숙(1996).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관련변인. *가정과학연구* 제6권, pp.1~8.
- 최진희(1999). 또래거명에 의한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성향의 차 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 박언하 · 홍혜영(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변 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 검증. 제3회 한국청소년 패널학술대회 자료집.
- Allport, G.(1973).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enry Holt.
- Baumeister, R. F.(1993).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New York: Plenum Press.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Vol.4 No.1,

pp.1~44.

- Bukowski, W. M., &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pp.15~45). New York: Wiley.
- Catalano, R. F., Haggerty, K. P., Oesterle, S., Fleming, C. B., & Hawkins, J. D.(2004). The importance of bonding to school for healthy development: Findings from the 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 *Journal of School Health, Vol.74 No.7*, pp.252~261.
- Cerezo, M. A., & Frias, D.(1994). Emotional and cognitive adjustment in abuse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Vol.18*, pp.923~932.
- Chung, I.-J., Hill, K. G., Hawkins, J. D., Gilchrist, L. D., & Nagin, D. S.(2002). Childhood predictors of offense trajector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39*, pp.60~90.
- Chung, I.-J., Nagin, D. S., Hawkins, J. D., & Hill, K. G.(2001). A didactic example of mixture modeling applied to the study of development in adolescent offend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17*, pp.197~218.
- Cole, D. A., Maxwell, S. E., Martin, J. M., Peeke, L. G., Seroczynski, A. D., Tram, J. M., Hoffman, K. B., Ruiz, M. D., Jacquez, F., & Maschman, T.(2001).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Vol.72 No.6*, pp.1723~1746.
- Coopersmith, S.(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2n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Diener, E., Wolsic, B., & Fujita, F.(1995).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9*, pp.120~129.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Vol.16 No.4*, pp.328~335.
- Duncan, T. E., Duncan, S. C., Strycker, A. L., Li, F., & Alpert, A.(1999). *An*

-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mler, N.(2001). *Self-esteem: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worth*, York, England: York Publishing Services.
- Ferrer, E., Hamagami, F., & McArdle, J. J.(2004). Modeling latent growth curves with incomplete data using different typ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softw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11, pp.452~483.
- Gardner, H.(1993).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 Green, A. H.(1985). Children traumatized by physical abuse. In S. Eth & R. S. Pynoos(Ed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children*(pp.133~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Harter, S.(1990). Identity and self development. In S. Feldman & G.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pp.352-387).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ter, S.(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In W. Damon(Series Ed.) & N. Eisenberg(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5th ed., Vol.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Harter, S.(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New York: Guilford.
- Hirsch, B., & DuBois, D.(1991).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The identification and prediction of contrasting longitudinal trajector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0, pp.53~72.
- Jang, S. J., & Thornberry, T. P.(1998). Self-esteem,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cy: A test of the self-enhancement 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3, pp.586~598.
- Jones, B., Nagin, D. S., & Roeder, K.(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Research and Methods*, Vol.29, pp.374~393.
- Kass, R. E., & Raftery, A. E.(1995). Bayes factor.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 Association*, Vol.90, pp.773~795.
- Lennon, S. J., Rudd, N. A., Sloan, B., & Kim, J. S.(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17 No.4, pp.191~202.
- Lepper, M., & Hodell, M.(1989). Intrinsic motivation in the classroom. In C. Ames & R. Ames(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Vol.3, pp. 73~105). New York: Academic Press.
- McCarthy, J. D., & Hoge, D. R.(1984). The dynamics of self-esteem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0, pp.396~410.
- Nagin, D. S.(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Vol.4, pp.139~157.
- Nagin, D. S.(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agin, D. S., & Land, K. C.(1993). Age, criminal careers, and population heterogeneity: Specification and estimation of a nonparametric, mixed Poisson model. *Criminology*, Vol.31 No.3, pp.327~362.
- Pipher, M.(1994). *Reviving Ophelia: Saving the selves of adolescent girls*. New York: Ballantine.
- Raftery, A. E.(1995). Bayesian model selection in social research. *Sociological Methodology*, Vol.25, pp.111~164.
- Rosenberg, M.(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hy(Ed.), *The development of self*(pp.55~121). Orlando, FL: Academic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4, pp.1004~1018.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0 No.1, pp.141~156.

- Savin-Williams, R. C., & Demo, D. H.(1983). Situational and transituational determinants of adolescent self-feel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pp.824~833.
- Spaulding, C. L.(1992). *Motivation in the classroom*, New York: McGraw Hill.
- Tauber, R.(1997). *Self-fulfilling prophecy: A practical guide to its use in education*, Westport, CT: Praeger.

ABSTRACT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Their Predictors

Chung, Ick-Jo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to identify predictors that might account for individual differences in both the initial level and rate of change over time. This study used data from wave 1-3(2003-2005)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The results of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showed that adolescent self-esteem has increased for three years and there were also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initial level and the rate of change in self-esteem. Physical attractiveness, child abuse, and academic achievement predicted both the initial level and rate of change in self-esteem. While parent-child attachment, parental monitoring and school attachment predicted only the initial level, family conflict predicted only the rate of change. In addition, 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SGM) was used to identify groups of individuals following different self-esteem trajectories by estimating different patterns of intraindividual stability and change. SGM revealed three different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elf-esteem: low, medium, high self-esteem group. Physical attractiveness, parent-child attachment, school attach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differentiated the three self-esteem trajectories from one another. Practice implications for youth welfare from this study are discussed to enhance adolescent self-esteem.

Key Words : adolescent, self-esteem, developmental trajectory,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

투고일 : 6월 18일, 심사일 : 7월 24일, 심사완료일 : 8월 14일

* Duksung Women's University